

# 위클리 글로벌

2017. 9. 11. Vol.32

# 목 차

2017. 9. 11. 해외사업진흥팀

구 분	제 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스트리밍 셋톱박스 강자 ‘로쿠’, 나스닥 IPO 신청</li><li>- 스타워즈9’ 감독, 콜린트레버로우 하차</li><li>- 초호화 캐스팅 기대작, 킹스맨2</li></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중국, 드라마산업 육성을 위한 14개 항목 통지 내용 발표</li><li>- 인기 예능 &lt;달려라 형제&gt;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침해 소송</li><li>- 중국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규모 5억 6500만 명 外 단신 2</li></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일본 콘텐츠 시장 11년만에 고성장, 포켓몬 GO 등 성공의 결과</li><li>- NHK 인터넷 동시 전송, 수신료 인상 포석? 민간방송 사업 압박 비판</li></ul>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SVoD 플랫폼으로 인해 영국 제작사 매출 상승</li><li>- CJ E&amp;M, MIPCOM에서 선보일 드라마 공개</li><li>- 스코틀랜드 정부, TV와 영화 부분 추가 투자 입법</li></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K-콘텐츠 엑스포 2017’, 인니 대표 한류콘텐츠 박람회로 발돋움</li><li>- 핑크퐁, 인도네시아 전역을 사로잡나</li></ul>

# 미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9. 11(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비즈니스센터

## □ 스트리밍 셋톱박스 강자 ‘로쿠’ , 나스닥 IPO 신청

- 미국 셋톱박스 스트리밍 강자인 ‘로쿠’ 가 나스닥 시장 IPO를 신청하면서 약 1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이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스닥시장에서는 ROKU라는 이름으로 거래될 예정
- 로쿠의 대주주로는 21세기 폭스, 피델리티, 먼로 벤처 등이 꼽힘
- 로쿠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해 3억 86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고 밝힘. 또한 Park Associates에 따르면, 로쿠의 올해 1분기 시장점유율은 37%로 이는 작년보다 32% 늘어난 것
- 2008년 첫 번째 장치를 출시한 로쿠는 사람들이 TV를 통해 직접 콘텐츠를 스트리밍 장치, 셋톱박스 시장의 주역임
- 로쿠는 현재 30달러에서 110달러에 이르는 다양한 가격대의 셋톱 박스 및 스트리밍 스틱을 제공하고, TCL 및 샤프와 같은 파트너를 통해 연결된 TV 세트인 Roku TV를 판매 중. 현재 로쿠가 제조 및 판매하는 셋톱박스는 유튜브, 넷플릭스, 그리고 HBO 채널 스트리밍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음
- 셋톱박스 업계에서 로쿠의 경쟁자로는 아마존의 파이어 TV, 구글 크롬캐스트, 애플 TV 등이 꼽히며, 아마존의 ‘파이어 TV’ 의 시장점유율은 25%로, 크롬캐스트와 애플 TV 또한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으나, 애플 TV의 경우 기기 가격이 150달러에 달하는 반면, 로쿠는 29.99달러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
- 한편, 로쿠는 올 상반기 매출 규모는 1억 9,970만 달러. 지난 6월 30일 기준 로쿠 월간 활용 사용자 수(MAU)는 1,510만 명을 넘어섬
- 지난 몇 년 동안 스트리밍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로쿠의 사업의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됨

## □ ‘스타워즈9’ 감독, 콜린 트레버로우 하차

- 유라기 월드로 주목을 받아왔던 콜린 트레버로우 감독이 ‘스타워즈9’ 감독직에서 상호 합의 하에 하차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연출자를 모색할 것이라고 루카스 필름은 스타워즈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식 발표함
- 루카스 필름은 “콜린이 개발과정에서 그동안 훌륭한 협력자였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와의 비전이 달라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할 때가 온 것 같다” 고 전하며, “콜린 트레버로우 감독이 새로운 영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다시금 빛을 보길 바란다” 고도 말함. 이어, 조만간 ‘스타워즈9’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는 말도 덧붙임

- 할리우드리포터는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이 최근 영화 ‘북 오브 헨리’가 혹평을 받으면서 ‘스타워즈’에도 여파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 작업 과정에서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과 루카스 필름의 캐슬린 케네디 대표와의 관계가 악화됐다는 소식도 전함
- 기존 2019년 5월 개봉 예정이었던 <스타워즈 : 에피소드9>는 원래 올해 4월부터 촬영 예정이었으나 레아 공주역을 맡았던 캐리 피셔의 사망으로 인해 각본수정이 불가피해졌고, 에피소드 9의 촬영이 1년가량 연기되었었음
- 콜린 트레보로우 감독이 제작사와 이견으로 결국 감독직에서 하차 수순을 밟게돼 아쉬움을 남기는 가운데, <스타워즈 : 깨어난 포스>,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를 잇는 새로운 3부작을 마무리할 이번 에피소드 9의 새 감독 후보에는 <라스트 제다이>의 라이언 존슨 감독과 <깨어난 포스>의 J.J. 에이브럼스 감독이 오르고 있다고 전해짐
- <스타워즈 에피소드9>은 2019년 메모리얼 데이 주말인 5월 24일에 개봉 예정

## □ 초호화 캐스팅 기대작, 킹스맨2

- 영국 영화 제작자 Matthew Vaughn의 스파이 액션 블록버스터, 킹스맨 속편 ‘킹스맨 : 골든 서클(Kingsman : The Golden Circle)’이 더욱더 강력해진 이야기와 초호화 캐스팅으로 귀환을 알리며 영화 관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콜린 퍼스와 태런 에저튼은 물론 할리 베리, 페드로 파스칼, 채닝 테이텀, 마크 스트롱, 제프 브리짓스, 줄리안 무어, 엘튼 존까지 출연하는 차기작에서는 비밀리에 세상을 지키는 영국 스파이 조직 킹스맨이 국제적 범죄조직 골든 서클에 의해 본부가 폭파당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형제 스파이 조직 스테이츠맨과 함께 골든 서클의 계획을 막기 위한 작전을 펼치며 벌어지는 일을 다룸
- 특히 엘튼 존은 ‘킹스맨’에서 특별 출연한다는 것만 알려졌을 뿐, 자세한 배역이 미정이라 더욱 호기심을 자극
- 20세기 폭스는 킹스맨이 북미 극장에서 오는 9월 22일에 개봉 시 4천만 ~ 4천 5백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는 2015년 2월에 데뷔한 킹스맨보다 3,620만 달러를 앞선 수치
- 한편 킹스맨의 데뷔작은 전 세계적으로 4억 1,440만 달러를 벌어들였음
- 좋지 않은 소식이 여름 내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킹스맨이 박스오피스를 부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중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9. 11(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 비즈니스센터

<b>정 책</b>	<p><b>중국, 드라마산업 육성을 위한 14개 항목 통지 내용 발표</b></p> <p>9월 4일,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상무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공동으로 &lt;드라마 번영 발전 지원에 대한 여러 정책에 관한 통지(关于支持电视剧繁荣发展若干政策的通知)&gt;를 발표함. 해당 통지는 중국 드라마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으로, 드라마 제작·구매·방송·홍보 등에 대해 규범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드라마 창작 계획 강화 : 2017~2022년 드라마 제작 계획을 수립</li> <li>2. 드라마 시나리오 지원 강화 : 혁명과 역사·현실·농촌 등 소재 중심</li> <li>3. 합리적인 드라마 투자와 분배 체제 구축 : 제작비의 기준이 스타의 출연료로 책정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li> <li>4. 드라마 방송 구조 정비 : 모든 방송국과 인터넷 동영상 채널은 매년 황금시간대에 혁명 역사·농촌·소수민족·군사 등 소재의 드라마를 방영</li> <li>5. 드라마 시청률 조사와 관리를 규범 : 드라마 시청률 조작을 엄격히 단속</li> <li>6. 드라마와 웹드라마의 관리 기준 동일 적용 : 스트리밍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광전총국의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영상물은 인터넷에서 서비스 불가</li> <li>7. 우수한 드라마의 수출 지원 : 중국 드라마의 해외버전 제작 등 지원</li> </ol> <p>이 밖에 8.드라마 인재 양성 강화 9.드라마 종사자의 사회 보장 혜택 보호 10. 새로운 문화예술단체의 직명 심사 정비 11.드라마 홍보·평론 강화 12.드라마 발전을 지원하는 재정 투자 제도 정비 13.기업과 사회조직의 드라마 제작 참여 유도 14.각급 정부 조직의 드라마 지원 관련 정책 실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함</p>
	<b>상 표 권</b>

<b>방 송</b>	<p><b>망고TV &lt;아빠 어디가&gt; 시즌5, 방영 불가 조치</b></p>
	<p>2016년 10월부터 망고TV에서 방영되기 시작한 &lt;아빠 어디가&gt;가 시즌5 방영을 앞두고 방영불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2013년 10월 11일 후난위성을 통해 첫 방영되어, 2015년 7월 시즌3까지 후난위성을 통해 방영되다가, 광전총국의 ‘스타2세 방송출연 제한’ 규정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망고TV으로 옮겨 방송됨. 2016년 10월 망고TV를 통해 시즌4가 방영되었고, 올해 초 망고TV는 시즌5를 제작하여 2017년 하반기에 방영할 예정이었음</p> <p>그러나 최근 망고TV 관계자에 따르면 &lt;아빠 어디가&gt;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방영 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설명하였고, 이는 8월 31일 발표된 &lt;중공 후난방송국 위원회의 순찰개혁현황에 대한 통보(中共湖南广播电视台委员会关于巡视整改情况的通报)&gt;에 의한 광전총국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 설명함. 구체적인 원인은 “미디어를 통해 스타 자녀들을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으며,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하지 않음(存在过度消费明星子女之嫌, 不利于青少年健康成长)” 이라고 밝혀짐</p> <p>내부 정보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성(省)위원회는 제1차 순찰조를 조직하여 후난방송국에서 방영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하였으며, 5월 24일 위와 같은 피드백이 돌아왔다고 알려짐. 이에 따라 7월 말부터 후난위성은 순찰조에서 지적한 총 11개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감</p> <p>&lt;아빠 어디가&gt;의 온라인 플랫폼 방영 금지 이외에도, MC와 게스트들의 관리 강화, 콘텐츠의 기획·제작·편성·방영까지의 모든 과정의 검열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p>
	<p><b>&lt;아빠 어디가&gt; 시즌5, 망고TV와 요우쿠에서 정상 방영</b></p>
<b>통 계</b>	<p>최근 중국 국가출판신문광전총국은 후난위성의 순찰개혁현황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도 방영이 금지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9월 7일 오후 12시 망고TV와 요우쿠를 통해 정상 방영됨.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방영 불가 조치에 대한 소문은 8월 31일 시행한 후난위성 순찰개혁결과 문건에서 ‘후난위성의 &lt;아빠 어디가&gt;의 2017년 방영을 금지한다’ 라는 문구를 전달한 매체 보도에서 시작됨. 또한 9월 5일, &lt;아빠 어디가&gt; 시즌5에 출연이 확정된 스타의 소셜미디어에 &lt;아빠 어디가&gt; 촬영현장 영상이 올라간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었고, 이것이 더 큰 소문을 발생시킴</p> <p>그러나 9월 7일 오후 12시 망고TV와 요우쿠를 통해 &lt;아빠 어디가&gt;시즌5가 유료회원들에게 선공개되었고, 8일(금) 오후 12시부터 무료로 공개될 예정임</p>
	<p><b>중국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규모 5억 6,500만 명</b></p> <p>상하이에서 열린 인터넷 시청각 행사(2017上海网络视听季)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6월까지 집계된 중국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규모는 약 5억 6,500만 명이고, 디지털 음원 이용자 규모는 약 5억 2,400만 명으로 집계됨. 본 행사에는 광전총국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관리자 사장 뤼젠휘(罗建辉)와 상하이 문화방송영상관리국 국장 위시우펀(于秀芬)이 참석하여, 2016년 6월까지의 통계와 비교하여 동영상과 음원의 어플리케이션 사용률이 각각 75.2%와 69.8% 증가하였다고 설명함</p>

# 일본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9. 11(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비즈니스센터

## □ 일본 콘텐츠시장 11년 만에 고성장, 포켓몬 GO 등 성공의 결과

- 일반사단법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가 동영상, 게임, 음악, 텍스트 정보 등 2016년 일본 콘텐츠산업 시장 규모에 대해 전년 대비 2.7% 증가한 12조 3,929억 엔으로 발표. <포켓몬 GO>의 성공으로 온라인게임부문이 20% 증가했으며, 영화 흥행 수입도 <너의 이름은.(君の名は °)> 등의 기여로 23.5% 증가했다고 발표함(2017.8.31.)
- 디지털콘텐츠시장은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동영상 전송이 전년 대비 15.9%, 음악 전송은 17.1% 증가하는 등 콘텐츠 전 장르의 인터넷 전송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한편 영상 DVD 등은 7.3% 감소, 음악 CD 등은 2% 감소함. 출판 업계에서도 전자서적은 27% 늘어난 반면, 잡지 판매는 5.9% 감소, 신문 판매는 1.7% 감소함
- 콘텐츠 중 가장 큰 시장 규모를 차지하는 민간방송 지상파 TV는 1조 9,561억 엔, 신문 판매가 1조 614억 엔으로, 여전히 전통 미디어의 존재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위는 온라인게임 1조 475억 엔, 4위는 인터넷 광고 9,194억 엔과 네트워크 시스템임)

## □ NHK 인터넷 동시 전송, 수신료 인상 포석? 민간방송 사업 압박 비판

-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과 인터넷 상 동시 전송 환경 정비를 두고 NHK가 심한 비판을 받고 있음
- NHK는 내년 정기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1년 앞둔 2019년에 본격적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하려는 의도이지만, 민간방송 등은 이에 대해 너무 조급한 처사라고 반발함
- NHK의 우에다 료이치(上田良一) 회장은 어디까지나 방송이 본업이며 인터넷 방송은 보완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지만 인터넷 동시 전송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침이 밝혀지면서 NHK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 인터넷 동시 전송은 수십억 엔의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연간 유지비도 수십억 엔에서 100억 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NHK가 일본 방송 사업의 견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은 이해하면서도 타 방송국간 경쟁이 불가피한 민간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사업임
- 또한 민간방송국이 NHK에 대항해서 인터넷 동시 전송에 나서면,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지역 방송국이 경영 위협을 받게 됨. 서비스의 성급한 추진은 민영 사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민방 측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음

# 유럽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9. 11(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 비즈니스센터

## □ SVoD 플랫폼으로 인해 영국 제작사 매출 상승

- 영국독립제작사협회가 실시한 조사 통계에 따르면, 영국 제작사들은 2015년부터 2016까지 해외 방송사 및 SVoD 플랫폼들을 통해 4억 8,600만 파운드(약 7,258억 원)의 매출을 올렸음
- 이는 이전 조사기간 대비 5.6% 상승한 수치로서 Netflix와 Amazon 등 SVoD 플랫폼으로의 매출 상승에 기인함
- 이 기간 동안 Netflix와 Amazon은 영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위해 영국에서 1억 2,600만 파운드(약 1,882억 원)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2015년 6,250만 파운드(약 933억 원)의 약 두 배임
- 또한 영국 제작사들의 완성작 해외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결과 2008년 대비 166%가 상승한 1억 6,600만 파운드(약 2,480억 원)를 기록했음

## □ CJ E&M, MIPCOM에서 선보일 드라마 공개

- 영국의 방송전문 매체인 C21미디어가 CJ E&M이 10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Mipcom에서 선보일 드라마 리스트를 공개했다고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CJ E&M이 제작 하고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로서 감정 없는 검사가 정부 내 부패를 밝히는 내용의 <비밀의 숲>과 시간 여행자가 냉정하지만 아름다운 여의사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코미디 판타지 <명불허전>, 그리고 수사물 전문 채널인 OCN에서 방영 중인 웹툰 원작사이비 종교 집단의 이야기인 <구해줘> 등이 선보여질 예정임

## □ 스코틀랜드 정부, TV와 영화 부분 추가 투자 입법

- 스코틀랜드 정부가 내년에 영화와 TV 부문 예산을 1,000만 파운드(약 149억 원) 늘려 이 부문에 총 2,000만 파운드(약 298억 원)를 투입할 예정
- 스코틀랜드 정부는 프로덕션들이 스코틀랜드에서 작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Production Growth Fund(프로덕션 진흥기금)에 투자한 325만 파운드(약 48억 원)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스코틀랜드 정부는 Creative Scotland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스튜디오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수당인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정부 자금 지원이 47만 파운드(약 7억 원) 정도 이루어진다면, 글래스고에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국립영상학교)가 세워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7. 9. 11(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 **‘K-콘텐츠 엑스포 2017’ , 인니 대표 한류콘텐츠 박람회로 발돋움**
  - 2017년 9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엑스포 (Jakarta International EXPO)에서 ‘K-콘텐츠 엑스포 2017’ 가 개최되어 약 2만 5천 명의 참관객들이 방문함
  -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지원부, 인도네시아 창조경제위원회(BEKRAF)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 공동 주관 하에 K-Pop 콘서트, K-콘텐츠 전시·체험관, K-뷰티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 한류 소비재 전시관, K-Pop 월드 페스티벌 등이 운영됨
  - 특히 KBS와 연계하여 9월 2일 개최된 KBS 뮤직뱅크 글로벌 콘서트에는 수천명의 한류팬들이 몰려 K-Pop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외에도 게임/VR관에 많은 참관객들이 몰리며 큰 인기몰이를 하였음
  - 한편, 2017년 9월 4일부터 5일까지 자카르타 웨라톤 호텔에서 ‘KNoock 2017 Indonesia’ 와 ‘한-인니 문화콘텐츠포럼’ 이 개최되었으며 이 외에 국내 콘텐츠 기업 43개사가 참가한 수출상담회에는 60여개의 동남아 현지 콘텐츠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



※ 이미지 출처 : 직접 촬영

## □ 핑크퐁, 인도네시아 전역을 사로잡나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베이비 샤크 챌린지’ 동영상의 SNS를 통하여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해당 동영상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핑크퐁 상어 가족이 등장하는 동요로, 반복적인 리듬과 간단한 율동, 특히 ‘두두두’라는 후렴구가 특징임
- ‘핑크퐁’은 글로벌 유아교육 브랜드로 2,500여개가 넘는 교육용 콘텐츠(동요, 동화 영상 등)를 보유하고 있고 핑크퐁 유튜브 공식채널 방문자수는 30억 명, 채널 구독자수는 350만 명이 넘었으며 현재까지 해당 동영상 유튜브 조회수는 8억만 뷰가 넘었음
- 지난 달 8월 초부터 핑크퐁 유튜브 공식채널 인도네시아 구독자수는 300%가 증가하였으며 핑크퐁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는 애플 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교육 분야에서 3위를 차지함
- 2017년 9월 6일 자카르타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된 ‘KNock 2017’에 참가한 스마트스터디 담당자는 ‘베이비 샤크’ 동요를 인도네시아어 버전으로 곧 발표할 예정으로 이미 인도네시아 배우가 노래를 녹음했다고 밝힘
- 인도네시아어로 동요를 녹음하게 된 계기는 인도네시아 TV 방송사 프로듀서의 제안으로 시작됨
- 현재 핑크퐁은 인도네시아 현지 파트너사를 찾고 있는 중으로 다양한 프로모션 진행 및 뮤지컬 콘서트 개최, 팝업 스토어 운영 등을 기획 중임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

- 미국 비즈니스센터(LA) 김철민 센터장 : +1-323-935-2070 / cmkim@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북경) 김기현 센터장 : +86-10-6501-9971 / gihun@kocca.kr
  - 일본 비즈니스센터(동경) 이경은 센터장 : +81-3-5363-4510 / lke0801@kocca.kr
  - 유럽 비즈니스센터(런던) 최윤수 센터장 : +44-20-7016-3333 / yschoi@kocca.kr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김남걸 센터장 : +62-21-2256-2396 / girl94@kocca.kr
  - 중동마케터(UAE 아부다비) 박상욱 마케터 : +971-2-491-7227 / swpark@kocca.kr
  - 남미마케터(브라질 상파울루) 박희란 마케터 : +5511-2476-5120 / brazil@kocca.kr
-